

가야사 연구성과를 통하여 본 부산의 고대사

백 승 옥
(울산대 강사)

目 次

- I. 머리말
- II. 가야사의 연구성과
 - 1. 시기별 연구성과
 - 2. 주제별 연구성과
- III. 가야사와 부산의 고대사
 - 1. 任那加羅의 위치
 - 2. 南加羅 지역연맹체의 범위
 - 3. 新羅로의 편입시기
- IV. 맺음말

I. 머리말

역사학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경향성이 있다. 우리는 현재의 시대를 세계화의 시대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지방화의 시대라고도 한다. 세계화와 지방화는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여 동시에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둘은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脫韓國化하여 西歐化로의 指向이 결코 세계화의 본연이 될 수는 없다. 세계화란 '우리의 것'을 '세계의 것'으로 만드는 데에 있다.¹⁾ '우리의 것'이란 무엇인가? 이 물음에 대해 주저하는 입장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찾는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지역사(=지방사)²⁾ 연구가 지역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첩경임에 동감한다면 부산의 발전 방향을 찾는 일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³⁾ 이상이 본고를 쓰게된 동기이다.

이러한 동기를 가지고, 그 동안 일구어 온 가야사 연구를 바탕으로 부산의 고대사 복원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두루 알다시피 부산의 고대사를 복원할 수 있는 자료는

-
- 1) 백승옥, <경남과 가야사·가야문화> 《慶南文化研究》22, 경성대학교 경남문화연구소, 2000, p. 24.
 - 2) 지역사, 지방사에 대한 용어 사용 문제는 논의 중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방이 중앙에 종속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지역사론)이나, 지역연구가 원래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한 나라에 대하여 여전히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택한 새로운 학문이기 때문에 지역사란 용어를 쓸수 없다는 입장(지방사론) 모두 일리있는 이유와 더불어 문제점도 있어 보인다. 본고의 입장은 유보적이며, 지역사와 지방사는 동일한 의미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의 논고들이 참고된다. 《대구사학》30 - 지방사 연구 특집호, 1986에 실린 노명식, 민두기, 오주환, 안승주 등의 글들. 김준형, <새로운 지역사연구와 향토교육을 위하여> 《역사교육》2, 푸른나무, 1991. 김광철, <지역사 연구의 전망> 《부산·경남역사연구소회보》창간호, 1994. 고석규, <지방사 연구의 새로운 모색> 《지방사와 지방문화》1 - 지방사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특집호, 학연문화사, 1998.
 - 3)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최근(2001년 12월) 부산광역시와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가 펴낸 《부산학연구문헌목록집》은 주요한 의미를 갖는 성과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의외로 적다. 이의 극복을 위해 그 동안 가야사 연구가 이루어내 연구성과의 활용은 매우 유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목적의 수행을 위해 먼저 Ⅱ장에서는 가야사에 대한 연구성과를 살펴 볼 것이다.⁴⁾ Ⅲ장에서는 가야사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부산의 고대사를 追究해 볼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특히 북천동고분군의 역사적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 볼 것이다.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뱃음말에서는 지역사 연구와 관련하여 고대 부산사 연구의 지향점에 대하여 논급해 보고자 한다. 先學諸賢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란다.

Ⅱ. 가야사의 연구성과

1. 시기별 연구성과

가야사에 대한 관심은 조선후기에 이미 보여 왔다.⁵⁾ 그들의 연구는 삼한사(가야사)의 부각이란 측면에서는 평가할 수 있지만, 三韓正統論에 바탕을 둔 華夷觀에 입각한 것이었다. 그 후 화이관을 탈피하면서도 다양한 자료의 섭렵과 실증적 연구를 통한 연구가 있었지만,⁶⁾ 그 맥은 제대로 이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20세기 日人學者들에 의해 가야사는 왜곡되기 시작하였다. 이른바 '任那日本府說'의 성립이 그것이다.

이는 한반도 침략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확고한 선입견 하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가야사는 왜곡될 수밖에 없었다. 20세기 初

4) 가야사에 대한 연구사 정리는 이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행해졌다. 최근의 정리로는 노중국, <가야사 연구의 어제와 오늘> 《한국 고대사 속의 가야》, 혜안, 2001이 있어 참고된다.

5) 韓百謙, 《東國地理志》, 後漢書三韓傳條에 대한 按說(三韓辨說), 및 新羅封疆 弁韓舊地條, 1615.

6) 韓致齋, 《海東釋史》, 卷16, 世紀16, 諸小國 加羅·任那 및 卷41, 交聘志9, 通日本始末, 1823. 韓鎮書, 《海東釋史續》卷3, 地理考3, 三韓 弁辰, 1823.

日人學者들의 연구는 '任那'관계 한반도 지명에 대한 고증작업 위주였으며,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⁷⁾ 이를 바탕으로 학문적 체계를 갖춘 '任那日本府說'은 1940년대에 완성되며, 日帝의 패망 후에도 계속된다.⁸⁾

해방 후 우리 측 가야사 연구의 큰 흐름은 일제 식민주의 사관에 의해 왜곡된 역사상을 바로잡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임나일본부설의 극복 문제는 거의 모든 연구자들의 뇌리 속에 있었다. 이는 결코 도외시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도 했지만, 객관성과 과학성을 담보하는 연구경향과는 거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60~70년대 가야사 연구는 임나일본부설의 후퇴 및 변용으로서의 연구와 이를 전면 부정하는 연구들로 이루어져 왔다. 前者가 日本人 학자들⁹⁾에 의해 이루어진 반면, 後者는 우리측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分國說'¹⁰⁾과 '百濟軍司令部說'¹¹⁾은 그 사실 여부를 떠나 任那日本府說을 전면 부정했다는 점에서 당시로서는 주목되는 것이었다. 특히 '分國說'의 경우는 일본학계에 기존 임나일본부설에 대한 반성의 계기를 심어 주었으며, '百濟軍司令部說'은 《日本書紀》의 관계기사 중에 倭가 주체로 되어있는 것은 百濟로 바뀌어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근거한 것이어서, 이후 《日本書紀》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 중요한 示唆을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양설 모두 취급 사료에 있어 편중성을 보이거나, 기년 조정에 문제점이 보이고 있어 그대로 따르기는 어렵다. 한편, 이 시

7) 津田左右吉, 〈任那疆域考〉《滿鮮歷史地理研究 - 朝鮮歷史地理 - 》1, 1913; 《津田左右吉 全集》11, 岩波書店, 1964. 今西龍, 〈加羅疆域考〉《史林》4-3-4, 1919; 《韓國古史の研究》, 國書刊行會, 1969. 鮎貝房之進, 〈日本書紀朝鮮關係地名攷〉《雜攷》7, 上・下卷, 1937.

8) 末松保和, 《任那興亡史》, 吉川弘文館(再版), 1956.

9) 井上秀雄, 《任那日本府と倭》, 東出版, 1973. 山尾幸久, 〈任那に關する一試論 - 史料の檢討を中心に -〉《古代東アジア史論集》下卷, 吉川弘文館, 1978.

10) 김석형, 〈삼한삼국의 일본열도내 분국에 대하여〉《역사과학》, 1963-1.

11) 千寛宇, 〈復元加耶史〉上・中・下《文學과 知性》28・29・31, 1977・1978; 《加耶史研究》, 一潮閣, 1991.

기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가야사에 대한 문헌자료가 집성·정리되었다는 것이다.¹²⁾ 이는 이후 가야사연구에 크나란 공헌을 한 업적으로 평가된다.

70년대 후반 들어 가야사연구의 새로운 경향은 문헌사학과 고고학의 접합이 시도되었다는 점이다.¹³⁾ 이는 70년대 이후의 국토개발에 따른 고고학적 발굴성과에 기인한 것이었는데, 가야사 연구에 큰 진전을 가져다 주었음은 물론 이후 가야사연구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사안으로 되었다.

방법론에 있어 70년대의 연구가 기본 문헌자료에 고고학적 연구성과를 원용한 단계라고 한다면, 80년대는 그러한 바탕 위에 《日本書紀》의 가야관계기사 내용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韓國 학계의 경우, 임나일본부설의 주요 근거로 작용했던 《일본서기》를 그 동안 터부시하여 왔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우리 측 문헌 자료가 매우 영세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풍부한 《일본서기》의 내용은 결코 버릴 수 없는 사료들임에는 틀림없다. 다만 철저한 사료 비판이 전제되지 않으면 위험성이 높은 사료들인 만큼 많은 주의를 기울여 할 것이다.

80~90년대 가야사연구에서 주목되는 점은 가야 자체 발전과정 중심 연구가 본격화되었다는 것이다. 60~70년대에도 그러한 연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접근 방식이나 자료 활용 등의 면에서 일정한 수준 차가 있었다. 즉 80년대가 되면 《日本書紀》의 가야관계기사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고고학적인 발굴성과를 본격적으로 원용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가야사의 체계화도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었다.¹⁴⁾

12) 丁仲煥, 《加羅史草》, 釜山大 韓日文化研究所, 1962; 《加羅史研究》, 혜안, 2000.

13) 金廷鶴, 《任那と日本》, 小學館, 1977; 〈古代國家의 發達(伽耶)〉 《韓國考古學報》 12, 1982; 〈加耶史의 研究〉 《史學研究》 37, 1983; 《韓國上古史研究》, 汎友社, 1990.

14) 金泰植, 《加耶聯盟史》, 一潮閣, 1993. 田中俊明, 《大加耶連盟의 興亡と「任那」》, 吉川弘文館, 1992. 白承忠, 《加耶의 地域聯盟史 研究》, 釜山大學教 文學博士 學位論文, 1995.

이 시기 가야사 연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된 것은 《日本書紀》에 대한 이해의 심화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일본 유학에서 돌아온 소장 학자들의 공이 적지 않다. 이들은 《日本書紀》를 보다 정치하게 분석하여 임나일본부에 대한 해명과 고대한일관계사의 연구뿐만 아니라, 가야를 중심에 둔 가야사 연구에도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¹⁵⁾

90년대 들어 새로운 연구경향의 하나는 개별각국사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제출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이전의 연구가 주로 김해의 南加羅와 고령 加羅에 대한 연구가 중심을 이룬 반면, 昌寧의 比斯伐에 대한 연구¹⁶⁾나 咸安의 安羅에 대한 연구,¹⁷⁾ 固城의 古自國에 대한 연구¹⁸⁾ 陝川 多羅國에 대한 연구¹⁹⁾ 등은 가야의 2대 중심국 외에도 관심을 가질 필연성을 제기하였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공동작업의 형태로 이루어진 加羅에 대한 연구는 가야사연구를 提高시킨 중요한 업적 중의 하나이다.²⁰⁾

地域史研究의 일환이기도 한 각국사에 대한 연구는 가야사연구를 보다 구체화시켰다는 점에서 향후 가야사연구의 방향을 시사하고 있다.

-
- 15) 李永植, 《加耶諸國と任那日本府》, 吉川弘文館, 1993. 李根雨, 《『日本書紀』에 引用된 百濟三書에 관한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1994. 鄭孝雲, 《古代 韓日 政治交涉史 研究》, 學研文化社, 1995. 延敏洙, 《고대한일관계사》, 혜안, 1998.
 - 16) 白承玉, 〈新羅·百濟 각속기의 比斯伐加耶〉《釜大史學》15·16, 1992; 〈比斯伐加耶의 形成과 國家的 性格〉《韓國文化研究》7, 1995.
 - 17) 權珠賢, 〈阿羅加耶의 成立과 發展〉《啓明史學》4, 1994; 〈安羅國에 대하여〉《大邱史學》50, 1995. 金泰植, 〈咸安 安羅國의 成長과 變遷〉《韓國史研究》86, 1994. 南在祐, 〈安羅國의 成長과 對外關係 研究〉, 成均館大學校 文學博士 學位論文, 1998. 李炯基, 〈阿羅伽耶聯盟體의 成立과 그 推移〉《史學研究》57, 韓國史學會, 1999.
 - 18) 白承玉, 〈固城 古自國의 形成과 變遷〉《韓國古代史研究》11, 韓國古代史研究會編, 1997. 李炯基, 〈小伽耶聯盟體의 成立과 그 推移〉《民族文化論叢》17,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7. 권주현, 〈古自國의 歷史의 展開와 그 文化〉《가야 각국사의 재구성》, 혜안, 2000.
 - 19) 조영제, 〈多羅國의 成立에 대한 研究〉《가야 각국사의 재구성》, 혜안, 2000. 姜正熏, 〈多羅國의 形成과 變遷〉《三國時代研究》1, 學研文化社, 2001.
 - 20) 盧重國 等, 《加耶史研究 -대가야의 政治와 文化-》, 慶尙北道, 1995.

1999년 11월 개최된 제23회 한국고고학 전국대회에서 공동 주제로 다루었던 성과물 《考古學을 통해 본 加耶》²¹⁾에서도 가야 각국들에 대한 고찰을 하고 있으며, 2000년 10월 27~28일 부산대학교에서 “가야 각국사의 재구성”이란 주제로 개최된 가야사학술심포지움도 기존의 가야 각국사에 대한 연구 성과의 종합과 함께 향후 가야사 연구의 방향을 점검해 보는 자리였다고 할 수 있다. 심포지움 때 논의된 점을 보완하여 제작성된 논문들과 진지한 토론 내용들을 집성하여 최근 책으로 간행되었다.²²⁾ 종래 가야제국 전체를 포괄하여 논의해 온 가야사 연구를 한 단계 진전시키기 위하여 가야제국 내부의 개별 소국에 대하여 역사학과 고고학의 입장에서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연구 축적되어 온 가야 개별 소국에 대한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종합·정리하고, 새로이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를 보다 심화시킨다면 종래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던 지역까지도 시야를 넓혀서 새로운 각도에서 논의를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이다.

비교적 등한시 되어오던 가야사의 연구가 이상과 같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게 되자 정부의 지원을 받아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 가야사정책연구위원회가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수행한 일련의 사업들은 그동안의 가야사 연구성과를 총 정리하고 앞으로의 연구 지향점을 모색해 볼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²³⁾

2. 주제별 연구성과

가야사의 연구수준 또한 많이 향상되었다. 가야 개별국에 대한 정치·사회구조를 해명해 보려는 노력들²⁴⁾이 보인다는 점은 연구 수준의

21) 한국고고학회 편, 《考古學을 통해 본 加耶》, 한국고고학회, 2000.

22) 부산대학교 한국민족연구소 편, 《가야 각국사의 재구성》, 혜안, 2000

23) 부산대학교 한국민족연구소 편, 《가야 각국사의 재구성》, 혜안, 2000. 같은 연구소 편, 《한국 고대사 속의 가야》, 혜안, 2001.

24) 盧重國, 〈대가야의 政治·社會構造〉《加耶史研究 -대가야의 政治와 文化-》, 慶尙北道,

한 단계 진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야사의 체계적 構築은 아직도 요원한 감이 있다. 가야사의 시간적·공간적 범위, 國名에 대한 문제 등 기초적인 부분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구체적 내용과 개념의 정리 없이 가야의 정치형태를 聯盟體로 설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1) 연맹체설에 대한 논의

가야사 연구에 있어서 제기되는 여러 論點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가야 연맹체설에 관한 것이다. 이는 주로 가야의 사회발전단계를 논하는 가운데 운위되던 용어였으나 최근에는 가야제국간, 혹은 가야 개별국의 정치형태를 논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전·후기 가야연맹체나 대가야연맹체, 지역연맹체 등의 용어는 모두 후자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개념들이다. 가야사 연구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한 나름의 시각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설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가야를 연맹체로 보는 견해의 효시는 李丙燾로 파악된다.²⁵⁾ 그는 《三國遺事》 五伽耶條를 그 주요 근거로 들면서 五伽耶나 六伽耶니 하는 것은 결국 加盟團體를 말한 것이라고 하였다. 맹주국을 제하고 그 이외의 諸國을 말할 때는 五伽耶라하고 맹주국까지 합치어 말할 때는 六伽耶라 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五伽耶條에서의 ‘又本朝史略云’ 以上과 以下에서 보이는 차이점, 즉 前者에는 중요한 金官伽耶의 명이 보

1995. 趙仁成, <6世紀 阿羅加耶(安羅國)의 支配勢力의 動向과 政治形態> 《加羅文化》 13, 1996. 李鎔賢, <加耶諸國의 權力構造-『任那』復興會議을 中心에-〉 《國史學》 164, 1998. 白承忠, <가야의 정치구조-‘부체제’논의와 관련하여-〉 《韓國古代史研究》 17, 韓國古代史學會, 2000.

25) 李丙燾, 《朝鮮史大觀》, 同志社, 1948; 이는 1년 동안 수정 5판을 발행하게 된다. 본고의 인용은 1949 발행의 제5판, p. 62. 이는 이후, 《韓國史 古代篇》, 震檀學會, 乙酉文化社, 1959, pp. 376~389와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pp. 311~313에서도 피력된다.

이지 아니하고, 後者에는 大伽耶·小伽耶가 빠지고 그 대신 非火伽耶가 들어있는 점에 대해서 주목하고 해석을 가하였다. “前者나 後者나 각기 盟主國을 除한 이외의 五伽耶를 지칭한 것으로, 前者는 특히 本伽耶盟主時代의 五伽耶이며, 後者는 특히 大伽耶盟主時代의 五伽耶라고 解釋된다”고 하였다.²⁶⁾ 이른바 6가야연맹체설은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제창되었다. 처음의 맹주국을 上加羅(고령)로 보고 나중의 맹주국을 下加羅(김해)로 보는 점 등에 대해서는 현재의 연맹체론자들과 차이가 있으나, 이는 가야를 연맹체로 보는 이른바 ‘연맹체설’의 최초 학문적 제기였다. 이후의 가야사 연구에 토대가 된 이 연구는 용어에 대한 개념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의도는 알 수 없지만, 가맹국 云云하는 것으로 보아 연맹체를 사회발전단계로서 파악한 것이 아니라 정치체의 한 형태로 본 것으로 보인다.

이후 가야에서의 연맹은 孫晋泰,²⁷⁾ 金哲俊²⁸⁾에 의해 ‘部族聯盟王國’, ‘部族聯盟’ 등과 같이 표현되면서 사회발전단계로 보기도 하고, 정치체의 한 형태로 설명하는 시각과 사회발전단계의 한 단계로 보는 시각이 결합되어 파악되기도 하였다. 金廷鶴²⁹⁾은 邑落國家란 용어를 채용하여 가야의 정치형태 파악에 주력하면서도 가야의 발전단계를 음악국가→음악국가연맹→가야연맹국가로 설정하면서 사회발전단계로서의 가야사 파악이란 면도 간과하지 않았다.

90년대 들어 金泰植의 경우 이전의 논자들과는 달리 사회발전단계³⁰⁾와 정치형태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논증의 방법이나 치밀

26) 李丙燾, 〈加羅諸國의 聯盟體〉《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p. 313

27) 孫晋泰, 《國史大要》, 乙酉文化社, 1949.

28) 金哲俊, 〈韓國古代國家發達史〉《韓國文化史大系 1》(민족·국가사),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64, pp. 466~487; 《韓國古代國家發達史》, 春秋文庫, 1975, pp. 44~82.

29) 金廷鶴, 《任那と日本》, 小學館, 1977; 〈古代國家의 發達(伽耶)〉《韓國考古學報》12, 1982; 〈加耶史의 研究〉《史學研究》37, 1983; 〈加耶의 歷史와 文化〉《韓國上古史研究》, 법우사, 1990, pp. 179~276.

30) 金泰植, 〈加耶의 社會發展段階〉《한국고대국가의 형성》, 한국고대사연구회, 민음사, 1990.

정도 진일보한 것으로 보인다.³¹⁾ 그런데 씨가 말하는 가야연맹체란 가야의 정치형태를 설명하는 논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加耶聯盟史》라고 이름하고 있는 그의 저서 어디에도 연맹 구조에 대한 남득할 만한 설명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기에는 김해의 구야국이 중심이 된 가야연맹체, 후기에는 고령의 대가야가 중심이 된 가야연맹체라 하여 전후기 모두 단일 연맹체로 설명할 경우 원만히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함안 안라국의 경우 독자적 세력을 구축하여 존재하고 있었음이 문헌적으로나 고고학적 유물상을 통해서 확인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단일연맹체론에 서는 한 포상팔국이 연합하여 가라국을 공격하는 사건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만을 본다면 田中俊明의 大加耶連盟體說이 보다 합리적이다. 田中은 대가야연맹 경계의 하한을 南江으로 보고 그 이남의 安羅를 중심으로 하는 남부지역을 대가야연맹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다른 정치권으로 설정하였다.³²⁾ 이는 가야 지역이 하나의 연맹체만이 아니라 적어도 2개 이상 복수 연맹체의 존재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權鶴洙는 考古人類學的인 틀을 適用하여 考古資料를 分析한 結果, 加耶諸國은 결코 單一同盟으로 結束한 것이 아니라 同一한 時期에 多數의 聯盟 즉 ‘小地域圈’이 存在한 것으로 보았다.³³⁾

白承忠은 加耶 歷史上 金海(駕洛國)와 高靈(加羅國)의 加耶勢力이 代表勢力이었을 蓋然性은 認定하지만 加耶地域 全體를 包括하지는 못했다고 하면서 加耶의 局地的·分岐的 特性을 強調하여 ‘地域聯盟體’의

31) 예를 들면, 이병도, 김철준 등이 연맹체설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던, 《三國遺事》〈五伽耶〉 조나 〈가락국기〉의 6란 설화를 후대의 것으로 비판하고, 《日本書紀》가야 관계기 사나 고고학적 유물, 유적을 바탕으로 논지를 전개하는 방법 등이다.

32) 田中俊明, 〈于勒十二曲と大加耶連盟〉《東洋史研究》48-4, 京都大文學部, 1990; 앞의 책, 1992.

33) 權鶴洙, 〈加耶諸國의 相關關係와 聯盟構造〉《韓國考古學報》31, 1994, pp. 152~158.

개념을 設定하였다.³⁴⁾ 이는 기존의 가야단일연맹체설을 비판하고 부정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 그러나 가야가 삼한 소국단계부터 멸망 때까지 시종 지역연맹체의 단계로만 지속하였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또한 지역연맹체에 편입되지 못한 가야 각국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이상 가야연맹체설에 대한 제가들의 견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연맹체가 사회발전단계를 의미하는 말이든, 각국간의 정치형태를 나타내는 말이든 모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가야 제국이 가야사의 전 시기를 연맹체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연맹이란 “공동의 목적을 가진 단체·조직 또는 개인이 동일한 행동을 할 것을 연합하여 盟約하는 일, 또는 그 연합체”로 정의된다. 따라서 사회발달 정도가 씨족사회, 혹은 부족국가(읍락국가)라 하더라도 상호간의 연맹은 가능하고, 고대국가들 끼리도 상호간의 연맹 결성은 가능하다. 또한 사회발달 정도에서 차이가 있는 정치체들 끼리도 연맹은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가야사 연구에 있어서 연맹체의 문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 후 접근할 필요가 있다.

2) ‘加耶’ 및 ‘加羅’에 대한 개념

가야에 대한 용례를 살펴보면 史書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동일 사서 속에서도 각기 다르게 쓰이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한 명백한 개념정리 없이는 가야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가야를 지칭하는 말로는 加羅, 伽羅, 迦羅, 呵囉, 柯羅, 賀羅, 加良(이상 이를 加羅係라 지칭한다)과 駕洛, 伽落(이상 駕洛係라 지칭), 加耶, 伽耶(이상 加耶係라 지칭)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동음어에 대한 異表記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들이 표기된 출전사료들의 편찬시기를 정리해 보면 가라계만이 가야가 존재했던

34) 白承忠, 앞의 學位論文, pp. 24~30.

<표-1> 加耶聯盟體說에 대한 諸論議

접근방법	연구자	연맹체에 대한 견해	시 기 구 분		
정치형태	李丙燾	部族國家聯盟體	上加耶聯盟(高靈)		
			下加耶聯盟(6加耶聯盟, 金海, 3世紀 前半 成立)		
	金泰植	전·후기 단일 加耶聯盟體	前期(1~4世紀) : 前期加耶聯盟 3~4 世紀 金海中心)		
			後期(4~6世紀) : 後期加耶聯盟 (5世紀 後半~520, 高靈中心)		
	田中俊明	大加耶連盟體	470~510年代 : 大加耶 中心		
權鶴洙	단일동맹 부정 소지역권 인정				
발전단계	金哲垓	加耶聯盟(部族國家聯盟)	上加耶(大加耶), 下加耶(金官加耶) 中心의 聯盟		
	李基東	聯盟王國(城邑國家聯盟)	本加耶中心(4世紀代) 大加耶中心(時期不明)		
양자복합	金廷鶴	弁韓 聯盟體(1~3世紀) 6加耶聯盟體(4~6世紀)	先加耶時代(青銅器~紀元前後)		
			加耶時代前期(1~3世紀)		
			加耶時代後期(4~6世紀, 5世紀 後半 以後 大加耶가 盟主國)		
	千寬宇	연맹체설 부정	城邑國家 (4世紀 以後)	早期加耶(紀元前 2世紀~紀元後 2世紀): 狗邪國	
				晚期加耶(6世紀 以後의 大加耶)	
	李永植		君長社會	1~4世紀中葉	
			都市國家	4世紀末 以後	
白承忠	地域聯盟體	김해 지역 연맹체 시기	등장(1C~2C전반)		
			전성기(2C중반~3C전반)		
			분열기(3C중반~4C말)		
		고령 지역 연맹체 시기	등장(5세기 전반~중반)		
			전성기(5세기 후반~6세기 초 쇠퇴기(6세기 전반)		
가야 地域聯盟體의 소멸기(520년대~562)					

당 시기의 국명이었음이 인정된다.³⁵⁾ 즉 가락계와 가야계는 12세기 이후에 편찬된 사서에만 보일 뿐 그 이전에 편찬된 사서들에는 가락계만이 보인다. 특히, 동시대 자료인 광개토왕릉비문에도 加羅係 借字 표기를 하고 있는 점은 유의된다. 이 중에서 가야계 용어는 이른바 《三國史記》 초기기록에도 보이지만, 초기기록은 신빙성에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가야계 용어가 당시기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가락계 용어가 언제 어떠한 연유로 가야계로 바뀌어 표기되게 되었을까?

金煥泰는 ‘廣開土王碑를 비롯한 국내외의 古史料에 보이지 않는 伽耶는 佛典에 보이는 地名이므로, 그 땅에 불교가 전해진 뒤에 오래지 않아서 그 佛典의 이름을 취하여 종래의 駕洛이나 加羅라 써 오던 옛 이름 대신에 새롭게 伽耶라 하였으리라’고 하였다.³⁶⁾ 여기서 말하는 불전이란 法華經 등을 말하는데, 이들 경전은 삼국시대부터 크게 신봉되어 受持 讀誦이 많이 되었다고 한다.³⁷⁾ 그의 소개에 의하면 法華經에는 ‘伽耶城’, ‘伽耶’ 등의 지역명이 나오며,³⁸⁾ 文殊門菩提經에서는 ‘摩伽

35) 權珠賢, 《加耶文化史 研究》, 계명대학교 문학박사 학위논문, 1998, pp. 17~20.

36) 金煥泰, 〈伽耶의 國名과 佛教와의 관계〉《伽耶文化》6, (財)伽耶文化研究院, 1993, p. 78.

37) 三國時代의 法華經信奉에 대해서는 金煥泰, 〈法華信仰의 傳來와 그 展開〉《韓國佛敎學》3, 1977과 〈三國時代의 法華受容과 그 信仰〉《韓國天台思想研究》, 東國大 佛敎文化研究院, 1983 등이 참고된다.

38) 《妙法蓮華經》卷5, 從地踊出品 15, “我於伽耶城 菩提樹下坐 得成正覺 轉無上法輪(나는 伽耶城의 菩提樹 아래 앉아 가장 올바른 깨달음을 얻고서 더 없는 최상의 法輪을 굴렀느니라; 大正藏經 9卷 p. 41 中)”, 如來爲太子時 出於釋宮 去伽耶城不遠坐於道場 得成阿耨多羅三藐三菩提(如來가 태자 적에 釋氏의 궁전을 나와 伽耶城으로 가서 멀지 않은 곳의 道場에 앉아 無上正等正覺을 이루셨다; 同書, 大正藏經 9卷 p. 41 下), 佛昔從釋種 出家近伽耶 坐於菩提樹 爾來尙未久(부처님은 옛날 釋迦種族에서 출가하여 伽耶의 가까운 菩提樹 아래에 앉았었느니……; 同書, 大正藏9, p. 42 上). 釋迦牟尼佛 出釋氏宮 去伽耶城不遠坐道場 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석가모니부처님이 釋迦族의 궁전을 나와 伽耶城으로 가서 그 곳에서 멀지 않은 道場에 앉아 無上正等正覺을 얻으셨다; 同書, 大正藏9, p. 42 中)

陀國 伽耶山' 등과 같이 伽耶 관련 지명 및 산명이 보이고 있다.³⁹⁾ 伽耶는 부처님의 修道 및 成佛한 곳이며 또한 說法한 장소(城 또는 山)로 알려져 왔다. 이러한 불교경전 속에서의 가야 용례는 삼국시대의 가야와 무관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즉 가야는 加羅의 불교적 雅語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가락계는 가라의 다른 표기로 보여지는데, 가락에서 기역(ㄱ)이 탈락하여 가라가 되었다는 견해도 있으나 가락계보다는 가라계가 시기적으로 앞서는 표기법으로 생각한다. 가락계는 당 시기의 것이 아닌 漢字式으로 雅化된 후대의 명칭으로 생각한다. 가락계의 借字는 그 출전 사서 가운데 편찬시기가 가장 앞서는 것이 <가락국기>이다. 이 점으로 미루어 보아 그 借字의 최초 시점은 <가락국기> 편찬시기인 고려 문종 대 太康年間(1075~1084)일 가능성이 있다.

가라계 용어가 가야계로 바뀐 시기는 언제일까?

金煥泰는 <가락국기>에 의하면 가야에 불교가 도입된 시기가 鍾知王代(451~492)라는 점과, 《法華經》이 弘始 8년(406)에 중국에서 번역된 경전이므로(번역자는 法華經, 文殊門菩薩提經 모두 鳩摩羅什이다) 시간적 모순도 없다는 점에서 가야 당시기에 이미 가야라는 국명은 존재했었다고 하였다.

가야불교의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가락국기>의 기록은 그 설화적 요소 때문에 차치한다 하더라도, 고려 고아동고분 천정의 연화문 그림으로 보아 늦어도 가야 말기에는 도입되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⁴⁰⁾ 그러나 가라가 존재했던 당시기에 가야란 국명이 사용되어졌다면 당 시

39) 金煥泰, 앞의 논문, p. 70

40) 경상북도 고려읍 고아동에 위치해 있는 고아동고분은 1963년에 발견되어 석실 내부가 조사되었다. 벽화 고분의 구조는 현실과 연도를 갖춘 횡혈식 석실분인데, 벽과 천장에 회를 칠한 뒤 벽화를 그렸고, 현재 벽화는 대부분 박락되었지만, 천장에 비교적 명확한 연화문이 12개~13개 잔존해 있다. 계명대학교박물관, 《高靈古衙洞壁畫古墳實測調査報告》, 1984. 석실의 축조시기를 6세기 전반대로 보고 있어 이 시기 고려의 加羅에는 불교가 수입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기 혹은 그와 가까운 시기에 쓰여진 중국의 사서에 한결같이 가라계 용례만 보인다는 점을 설명할 수 없다. 720년에 쓰여진 《日本書紀》에도 가라계의 借字 용례는 모두 32회나 보이지만⁴¹⁾ 가야계 용례는 보이지 않는다. 한 예이기 하지만 동시대 자료인 광개토태왕릉비문에서도 가야계 용례가 아닌 가라계 용례가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보아 가야계의 借字는 8세기 이전에는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필자는 가야계 용어가 모두 12세기 《三國史記》 편찬시 일괄적으로 고쳐 적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羅末麗初의 시대적 상황에서 가야란 말이 생겨난 것으로 생각한다. 국명의 경우 그 국이 존재하였던 당 시기의 것으로 쓰여 타당한만큼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쓰는 ‘가야’ 보다는 ‘가라’란 용어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당 시기와 후대에 만들어진 용어를 구별없이 사용함으로써 빚어지는 혼란과 오해를 막기 위해서이다. 가야사의 경우 이미 이러한 폐해를 많이 입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가라’라는 국명이 이른바 당시 가야제국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라 김해와 고령에 존재했던 國에만 사용되었다는 점이다.⁴²⁾ 따라서 전체가 통합된 바 없었던 나라들에 대해서 전체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가라’로 부를 수도 없다. 여기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과연 당시기에 전체 가야제국들을 아울러서 불렀던 용어가 있었던 가이다. 《日本書紀》의 경우 任那라는 용어로서 전체를 아울러 지칭한 용례가 보이나, 이는 용어 그 자체만 빌어왔을 뿐, 그 의미는 7~8세기 日本 古代天皇主義史觀에 의해 표현된 예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수로신화에 보이는 6卵이나 《三國遺事》 五伽耶條에 보이는 가야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이는 당 시기가 아닌 후대의 가

41) 金泰植, 앞의 책, p. 17의 〈表 1〉 참조.

42) 백승옥, 《加耶 名國의 成長과 發展에 관한 硏究》, 부산대학교 문학박사 학위논문, 2001. pp. 42~49.

야관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제국들을 일체화하여 보고 있으며, 그 명칭을 가야로 표현하고 있다.

필자는 가야제국 전체에 대한 一體性(특히 정치적 일체성)을 인정할 수는 없지만, 제국 전체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가야'란 말을 잠정적으로 사용함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다른 방안이 잘 찾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는 이미 통례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혼돈을 피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개별 각국에 대한 국명은 당시기에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국명을 史書에서 확인하여 사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加羅는 어떠한 語源을 가지는가? 이에 앞서 弁辰狗邪國의 狗耶에서 가야란 표기법이 생겨났다는 견해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⁴³⁾ 이는 狗邪國과 가야국이 동일 지점으로 파악되는 점과 그 音相似에 근거한 설명이다. 狗邪國이 김해 지역에 있었던 삼한 소국이었던 만큼 狗耶에서 加耶로 변화했다는 설명은 가야사의 전개과정에서 보면 체계적인 것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 그러나 狗邪國이 3세기 대의 국명인 반면 가야는 가야 당 시기의 국명이 아닌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 狗邪國 다음 단계의 국명 借字는 加羅係이다. 따라서 狗耶→加耶로의 음상사보다는 狗耶→加羅의 음상사를 따져 보아야 한다.

Karlgren의 中國 上古音 分析에 의하면 '狗'는 kou/kau/ku, '駕'는 kia/kia/ka, '加'는 kia/kia/ka, '洛'은 lo/lok/lok, '羅'는 lo/lo/la, '邪'는 ie/ie/ia, '耶'는 ie/ie/ia 등으로 發音上의 變化를 겪었다고 한다.⁴⁴⁾ 따라서 上古音を 比較해 볼 때 '駕'와 '加'는 통하지만 '狗'와는 差異를 보이고 있고, '洛'은 '羅'와 '耶'는 '邪'와 각각 통하지만 狗

43) 韓鎭書, 《海東譯史》, 續集1, 地理考3, 三韓 下 疆域總論, 加羅·伽耶·駕洛 皆一也 其國都在今金海府 魏志所云弁辰狗邪國 卽此也 東語狗 謂之伽伊 音轉而義同 狗邪者加羅也." 이와 관련하여 권주현은 "《三國史記》가 '加耶'로 쓴 것은 그 이전부터의 典據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고, '가야'가 가장 오랫동안 보편적으로 쓰여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그리고 狗邪를 기존에 있었던 '加耶'의 音借로 보고, 후대에 불교와 습합되면서 '伽耶'로 되었다고 보고 있다. 권주현, 앞의 학위논문, p. 21의 註7).

44) Bernhard Karlgren, 《漢字古音辭典》, 아세아문화사, 1975, pp. 93~238.

耶와 加耶의 關聯性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語源的인 側面에서는 狗耶는 加耶와도 相關性이 없다.⁴⁵⁾ 이 점은 狗耶와 加耶의 음상사를 바탕으로 그 借字의 동일성을 주장하거나, 狗耶에서 加耶로 곧 바로의 변화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加羅의 語源에 대해서는, 冠嶺 由來說, '開墾한 平野'라는 뜻의 南方 冼어인 kala 由來說, 갓나라(邊國·一邑) 由來說, 가람(江) 由來說, 겨레(族) 由來說, '韓의 나라' 由來說 등이 있다. 필자는 韓의 다른 借字 표기법이 加羅라고 본다. '韓'은 '干'과 통한다. '干'은 존장자, 존귀자의 의미도 있지만 '大'의 뜻도 있다. 따라서 加羅는 '干的 나라', 즉 '큰 나라'의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가야사의 起點

가야 제국의 멸망 연대는 각국마다 차이가 있지만 562년 加羅의 멸망으로 가야사는 그 막을 내린다는 점에서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문제는 가야사 시작의 기점이다. 논자에 따라 기원전 3~2세기로 보는 견해가 있는가하면 기원후 3~4세기로 보는 견해도 있어 무려 500년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가야사를 바라보는 시각차에서 생겨난 것이다. 이른바 원삼국시대 또는 삼한시대 역사를 加耶前期로 파악하는 경우는(이를 前期論者라 칭한다) 삼한 소국의 형성시기부터 가야의 역사로 보아, 가야사의 기점은 기원을 전후한 시기 혹은 그 이전으로 소급된다. 이들은 모두 삼한시기를 가야사의 범위에 넣고 있다. 한편, 삼한의 역사를 가야와는 별도로 삼한 그 자체의 역사로 보고 진정한 가야사의 시작은 3세기 중·후엽 이후로 보는 견해도 있다(이를 前史論者라 칭한다).

그런데 전기론적 입장에 있다하더라도 논자들마다 기점에 대한 차이는 있으며, 전사론자들도 각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동일한 논

45) 白承忠, 앞의 학위논문, p. 17의 주 60).

자라 할지라도 삼한사적 접근을 할 경우와 가야사적인 접근을 할 경우 각각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 논지를 확연하게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⁴⁶⁾ 그러나 삼한 소국과 가야 제국은 연속선상에 있고, 삼한 소국의 형성과 성장·발전의 결과가 곧 가야제국이기 때문에 외형적 명칭의 변화만으로 분류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할 수도 있다. 가야사의 시작은 변한 소국의 형성부터이며, 변한과 가야의 획기란 전체 가야사 속에서의 획기로 설정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4) 境域⁴⁷⁾의 문제

가야의 경역에 대한 기왕의 연구는 대부분 가야와 신라의 경계를 문제삼아 왔다. 이는 가야와 신라의 존재형태나 각국의 내부구조를 간과한 채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 외에도, 구분의 기준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결론에 도달하였다.⁴⁸⁾

가야의 경역에 대해서 《三國遺事》〈가락국기〉에는 그 경계를 “東으로 黃山江(낙동강하류), 西南은 滄海(남해안), 西北은 地理山(智異山), 東北은 伽耶山の 남쪽”이라 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책 〈五伽耶〉條에 의하면 이 범위를 벗어나는 가야국명들이 나오고 있다. 즉, 현 창녕 지역에 존재했었던 非火伽耶와 북천동고분군이 있는 부산 동래지역은 낙동강 동쪽에 위치하며, 古寧伽耶와 星山伽耶도 이 경역을 벗어나는 곳에 위치한다. 동일 史書에서의 엇갈린 서술은 그 동안 가야사의 이해에 크

46) 朱甫暉, 〈序說 -加耶史의 새로운 定立을 위하여〉《加耶史研究 -대가야의 政治와 文化-》, 慶尙北道, 1995, p. 18의 注 30) 참조.

47) 境域과 領域은 구별하여야 할 것이다. 境域의 사전적 의미는 ① 경계가 되는 구역, ② 경계 안의 땅이며, 領域은 ① 어떤 나라의 주권에 딸린 범위, ② 영향이나 세력이 미치는 범위이다(한글 학회, 《우리말 큰사전》, (주)어문각, 1992). 본고에서는 사전적 의미 차이를 존중하여 사용할 것이다. 특히 영역의 경우는 중심부 세력의 영향이나 세력이 미치는 범위로 정의하여 사용할 것이다.

48) 이에 대한 문제점의 정리는 후보돈의 글이 正鵠을 얻고 있다. 朱甫暉, 앞의 논문, pp. 22~30.

다란 장애가 되어왔다.

이 문제에 대한 기왕의 설명에서는 〈五伽耶〉條의 6가야를 가야 전체 역사 중에서 어느 한 시기의 경역을 표시한 것으로 보아, ‘가야 멸망 직전의 경역을 나타낸 것이거나 加耶 여러 나라 중 특별히 강한 6國을 지칭한 것으로’ 추측하기도 하였다.⁴⁹⁾ 또는 〈五伽耶〉條에 보이는 古寧伽耶의 경우 현 咸昌이 아니라, 晋州로 비정하기도 하여 〈가락국기〉와의 모순점을 극복해 보고자 하였다.⁵⁰⁾ 그러나 이러한 설명들은 미봉적일 뿐 충분한 설득력과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五伽耶〉條의 내용이 후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가락국기〉와의 모순은 염두에 둘 필요가 없다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락국기〉역시 같은 논리(후대의 산물이라는)로 그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한편, 앞의 《三國遺事》〈가락국기〉에 보이는 가야 영역표시기사로서 가야의 領域을 논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나 이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가야사에 있어서 가야 지역 전체가 정치적으로 통합되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단, 일정시기 형성된 연맹체의 범위로서의 영역이나 가야 개별 각국들의 영역에 대해서는 논할 수 있을 것이다.⁵¹⁾

《日本書紀》에 보면 가야 지역을 통칭하는 용어로서 ‘任那’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 마치 가야 지역이 하나의 정치체로 묶어 있었던 것처럼 보이고 있다.⁵²⁾ 그러나 《일본서기》에서는 ‘任那’를 高句麗, 百濟, 新羅와 함께 ‘朝貢’해 오는 ‘蕃國’이며, 천황의 ‘內官家’로 취급하고 있다. 따

49) 李基白·李基東 共著, 《韓國史講座》I (古代篇), 一潮閣, 1982, p.156.

50) 李丙燾, 〈加羅諸國의 聯盟體〉《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p. 313.

51) 이런 점에서 李熙濬이 고려계 양식 토기 분포 양상을 바탕으로 加羅의 영역팽창과 그 성격에 대해 논한 연구(李熙濬, 〈토기로 본 大伽耶의 圈域과 그 변천〉《加耶史研究 - 대가야의 政治와 文化-》, 慶尙北道, 1995, pp. 409~427)는 이전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52) 《日本書紀》卷19, 欽明 23年 春正月條, “新羅打滅任那官家[一本云 二十一年 任那滅焉 總言任那 別言加羅國 安羅國 斯二岐國 多羅國 卒麻國 古嗟國 子他國 散半下國 乞滄國 稔禮國 合十國].”

라서 천황의 內官家는 당연히 개별 분산적 모습이 아닌 하나로 통제되는 모습으로 그리려고 했을 것이다. 이는 《일본서기》 편찬시의 울령국가 지배층의 대외인식에 의해 규정된 것이다. 즉 《일본서기》의 임나 인식은 7세기말의 일본 지배층의 국가의식과 설화적 역사의식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일본서기》 속의 임나는 때로는 통합적인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 원사료가 비교적 충실히 반영되었을 때에는 개별 분산적인 모습으로도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서기》가 가지고 있는 사료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임나'를 고구려, 백제, 신라와는 명백히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만을 중시한다면, 任那로 통칭되는 가야의 영역은 《일본서기》 흠명기 23년조에 보이는 임나 10국과 남가라, 탁기탄, 탁순국이 위치했던 지역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엄밀히 말하면 이들 지역은 가야의 영역이라고 하기 보다는 백제와 신라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고 있었던 각 개별국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지역으로서의 경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고고학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은 있어 왔다. 金元龍은 낙동강 이동의 토기군과 이서 토기군으로 구분하고 각각 신라토기와 가야토기로 명명했다. 安春培는 《三國史記》新羅本紀에 보이는 4세기대 이전(이른바 초기기록) 신라의 대외 팽창기사를 신빙하는 입장에서, 가야관계 지명비정을 바탕으로 가야의 영역을 추정하였다.⁵³⁾

東潮는 고고학적인 자료들(墓制, 冠帽, 馬冑, 甲冑, 土器)로부터 문화권을 설정하고 그러한 문화권이 정치권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 라는 입장에서 가야의 영역을 추구하였다.⁵⁴⁾

이들은 모두 신라 아니면 가야라는 입장에서 문제에 접근하였기 때문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였다고 보여진다. 더구나 문헌기사를

53) 安春培, 《加耶土器와 그 領域의 研究》, 東亞大學校 文學博士 學位論文, 1993, pp. 24~36.

54) 東潮, 〈伽耶諸國의 領域을めぐって〉《伽耶はなぜほろんだか》, 大和書房(增補改訂版), 1998, pp. 83~109.

이용한 경우에는 사료에 대한 일차적 비판이 결여된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의 초점은 현 경북 성주와 같은 낙동강 이서 지역의 일부를 포함하여, 부산·창녕·대구·경산·선산·상주 등과 같은 낙동강 동안지역의 4~6세기대 정치적 성격에 있다고 보여진다. 최근 이들 지역에 보이는 문화적 양상을 중심으로 신라의 진출시기를 추정하여 신라와 가야 경역을 추정하는 연구들이 있다.⁵⁵⁾ 문화적 양상과 정치적 양상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역 상호간의 교차편년이 안정되어 있지 않은 등의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신라 偏向的 정치성향을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독자적 정치체가 존재한, 그래서 주변 상황에 따라 유동적 성향의 지역을 신라영역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의 해결점은 각 지역마다의 독자적 성장과 변화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일에 있다고 여겨진다. 즉 개별 지역사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어야만 가야의 경역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상에 대한 해석의 문제는 여전히 시각차가 존재할 것이므로 간단치만은 않을 것이다.

Ⅲ. 가야사와 부산의 고대사

가야사를 논의함에 있어 부산의 고대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추려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광개토태왕 비문에 보이는 任那加羅의 위치 비정 문제이다. 400년 고구려의 남정군이 다다른 任那加羅의 위치가 김해·부산쪽이 아니라 고령쪽이었다는 논

55) 李漢祥, 〈5~6世紀 新羅의 邊境支配方式 -裝身具分析을 중심으로-〉《韓國史論》33(서울대), 1995; 〈4세기 전후 신라의 지방통제방식〉《역사와 현실》37, 한국역사연구회, 2000. 李熙濬, 〈4~5세기 新羅의 考古學的 研究〉, 서울대학교 문학박사 학위논문, 1998. 朱甫喲, 〈新羅國家形成期 大邱社會의 動向〉《韓國古代史論叢》8, 韓國古代社會研究所, 1996; 《신라 지방통치체제의 정비과정과 촌락》, 신서원, 1999.

자들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보다 구체적 논증이 필요로 하게 되었다. 둘째는 전기 가야의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南加羅의 범위 문제이다. 이는 김해 대성동고분군 축조 세력과 부산의 복천동고분군 축조 세력이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가가 논의의 초점이다. 세째는 부산 지역이 新羅化되는 시기 문제이다. 문헌 기록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음으로 고고학적 유물의 양상으로 고찰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인데, 논의가 분분하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1. 任那加羅의 위치

高句麗 廣開土王陵碑文⁵⁶⁾에는 400년에 광개토왕이 보낸 고구려군이 任那加羅 從拔城에까지 이르는 기사⁵⁷⁾가 있어 당시를 전후한 가야사의 양상을 추구해 볼 수 있게 한다. 주지하다시피 廣開土王陵碑文은 고구려사 연구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한국 고대사 연구, 나아가 고대 동아시아사 연구에 있어서 1급의 사료이다. 특히, 倭에 관한 기록이 나오므로 해서, 일찍부터 일본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아 왔었다. 가야사의 연구에 있어서도 기록의 영세성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비문상의 가야관계 기록은 비록 단편적인 기사이긴 하나 매우 중시되어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동안의 가야사 연구에

56) 비의 명칭에 대해서도意見들이 있다. 광개토왕릉비(李基白 編, 《韓國史 市民講座》 제 3집, 一潮閣, 1988 및 북한학계), 광개토왕비(일본학자의 대부분), 호태왕비(중국학자 대부분과 일부 일본학자), 광개토호태왕비(朴性鳳, 〈廣開土好太王期 高句麗 南進의 性格〉《韓國史研究》 27, 1979. (社團法人)高句麗研究會, 《廣開土好太王碑研究 100年》, 제2회 高句麗國際學術大會, 1996 등이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학계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보여지는 광개토왕릉비라 쓴다. 이하에서는 비(문)이라 약칭한다.

57) “十年庚子, 教遣步騎五萬, 往救新羅. 從男居城, 至新羅城, 倭滿其中. 官軍方至, 倭賊退, □來背急追至任那加羅從拔城, 城即歸服. 安羅人戍兵□新羅城□城, 倭滿倭潰城□□盡更 □來安羅人戍兵滿□□□其□□□□□言□□□□□□□□□□□□□□□□□ □□□□□辭□□□□□□□□□□潰□以□安羅人戍兵. 昔新羅寐錦未有身來□□□□□開土境好太王□□□寐錦□□僕勾□□□朝貢.”(釋文은 水谷悌二郎, 《好太王碑考》, 東京, 開明書院, 1977)

있어서는 이 귀중한 자료를 충분히 활용했다고는 볼 수 있다. 오히려 그 해석상의 난점 때문에 혼란을 가중시킨 감도 없지 않다. 여기에서는 비문상에 보이는 가야관계기사 가운데 任那加羅의 위치문제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비문 10년 庚子年條에 의하면, 고구려 광개토왕은 보기 5만을 보내, 신라에 침입한 왜를 물리치고 任那加羅의 從拔城까지 추격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⁵⁸⁾ 그런데 기왕의 연구에서는 비문상의 任那加羅의 위치에 대해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現 김해·부산의 南加羅로 보는 설과 고령의 加羅國으로 보는 설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는 당시기의 가야사상을 구축하는 데에 있어 아주 중요한 문제이므로 검토를 요한다고 하겠다. 아울러 부산 고대사를 구축하는 데에 있어서도 빠질 수 없는 논쟁점이라 할 것이다.

任那是 비문에 처음으로 나오며, 그 외 우리측 기록에는 鳳林寺眞鏡大師寶月凌空塔碑文⁵⁹⁾과 《三國史記》强首列傳⁶⁰⁾에 나오고 있다. 중국 사료에는 《宋書》倭國傳의 4例, 《南齊書》 왜국전(1), 《梁書》 왜전(1), 《南史》 왜국전(5), 《通典》 신라전(1)에 나온다. 일본사료에는 임나의 借字인 彌摩那, 御間名 등을 합하여 《日本書紀》에 216例, 《新撰姓氏錄》에 12例가 나오고 있다.⁶¹⁾

58) 위의 주와 같음.

59) 鳳林寺眞鏡大師寶月凌空塔碑文(932), “大師諱審希 俗姓新金氏. 其先任那王族 草拔聖枝 每苦隣兵 投於我國. 遠祖興武大王 龜山稟氣 鯨水騰精 握文符而出自相庭 携武略而高扶王室 □□終平二敵 永安兎郡之人 克奉三朝 遐撫辰韓之俗.”(釋文은 金泰植·李益柱 編, 《加耶史史料集成》, 財團法人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2)

60) 《三國史記》卷46, 列傳6 强首傳, “强首中原京沙梁人也 父昔諦奈麻 其母夢見人有角 而妊身 乃生 頭後有高骨 昔諦以兒就當時所謂賢者 問曰 此兒頭骨如何也 (中略) 父還謂其妻曰 爾子非常兒也 好養育之 當作將來之 國士也 及壯自知讀書 通曉義理 父欲觀其志 問曰 爾學佛乎 學儒乎 對曰 愚聞之佛世外教也 愚人間人 安用學佛爲 願學儒者之道 父曰 從爾所好 遂就師讀孝經-曲禮-爾雅-文選 所聞雖淺近 而所得愈高遠 魁然爲一時之傑 遂入仕 歷官爲時聞人 强首嘗與釜谷治家之女野合 情好頗篤 及年二十歲 父母媒邑中之女有容行者 將妻之 强首辭不可以再娶 父怒曰 爾有時名 國人無不知 而以微者爲偶 不亦可恥乎 (中略) 問其姓名 對曰 臣本任那加良人 名字頭 [字 趙炳舜本作牛] 王曰 見卿頭骨 可稱强首先生.”

61) 이상의 통계는 金泰植, 앞의 책, p. 23 참조.

‘任那’의 위치에 대해서는 대개 이를 넓은 의미의 것과 좁은 의미의 것으로 나누어 보고 있는데, 넓은 의미의 임나 위치에 대해서는 낙동강 右岸을 중심으로 한 가야제국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넓은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만 있을 뿐 다른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 《日本書紀》의 용례로 보아 임나를 넓은 의미로 본 경우도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그 용례가 처음부터 생겨난 것은 아니고, 좁은의미의 임나(즉 한 특정지역)에서 출발하여 전 가야지역을 의미하는 말로 용례가 전용되었다고 생각한다.

좁은 의미의 위치에 대해서는 이를 김해로 보는 경우와 고령으로 보는 경우로 나누어 지고 있다. 김해로 보는 설의 유력한 근거사료는 봉림사진경대사보월릉공담비문의 주인공인 審希가 新金氏로서 그 선조가 임나왕족이고 遠祖가 興武大王(金庾信의 追封名)이라는 기록과, 《日本書紀》 崇神紀 65년 7월조의 “임나는 축자국으로부터 바다를 격해 북으로 이천 여리 떨어져 있고, 계림(신라)의 서남쪽에 있다.”⁶²⁾라는 기사이다. 이 두 기사에 근거하는 한 좁은 의미의 임나는 김해로 보아도 좋을 듯하다.

任那를 고령으로 보는 설의 근거는 《삼국사기》 대가야의 멸망연대인 신라 진흥왕 23년(562)⁶³⁾이 《일본서기》의 임나 멸망연대인 흠명 23년(562)⁶⁴⁾과 일치한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欽明紀 임나 멸망기사에서의 임나는 그 세주의 기록에서도 나타나듯이 가야지역 전체를 임나라고 총칭하던 일본의 후대적 관념을 나타낸 것이다. 그것이 《삼국사기》 대가야 멸망연대와 일치한다고 해서 곧 임나는 고령이라고 판단한 것은 문헌자료 개개기사의 자구에 현혹되는 잘못을 드러낸 것이다.⁶⁵⁾

62) 《日本書紀》卷5, 崇神 65년 7월조, “任那者 去筑紫國 二千餘里 北阻海 以在鷄林之西南.”

63)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4, 眞興王 23년(562), “九月 加耶叛 王命異斯夫討之 斯多舍副之 斯多舍領五千騎 先馳入梅檀門 立白旗 城中恐懼 不知所爲 異斯夫引兵臨之 一時盡降.”

64) 《日本書紀》卷19, 欽明 23년(562년) 春正月條, “新羅打滅任那官家〔一本云 二十一年 任那滅焉 總言任那 別言加羅國 安羅國 斯二岐國 多羅國 卒麻國 古嵯國 子他國 散半下國 乞滄國 稔禮國 合十國.”

한편 임나를 한반도가 아닌 일본열도나 대마도에 비정하는 견해도 있지만, 비과학적 논거에 바탕하고 있기 때문에 언급을 회피한다.

최근 이영식은 비문의 任那加羅 위치를 고려으로 본 구설⁶⁶⁾을 보완 하면서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⁶⁷⁾

① ‘광개토왕릉비문’의 임나가라는 신라의 적대세력이다. 그러나 《삼국사기》는 나해왕 14년(209)에 김해 서부의 포상팔국이 김해 가야국을 공격하자, 가야국은 신라에 구원을 요청하였으며, 나해왕 17년(212)에는 신라의 구원에 감사하여 가야국의 왕자를 인질로 보냈음을 전한다. 이후에 가야국과 신라의 군사적 충돌이 보이지 않는 점과 포상팔국의 난을 4세기로 보는 견해를 참고로 한다면 4세기말 5세기 초에 가야국(김해)이 신라에 적대적이었을 가능성은 적다.

② 任那加羅는 고구려의 침입에 곧 바로 항복하였다. 그러나 이전까지의 김해는 가야제국 중에서 최유력국이었으며, 고려의 가야는 이제 막 성장을 시작하는 단계의 정치세력이었다. 임나가라가 김해였다면 그 대응이 너무 미미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③ 5세기 초의 동래와 김해의 고분군에서 고구려계의 문물이 등장하는 계기를 여기서 구하기도 하였으나, 고령(지산동)과 함천(옥전)의 고분군에서도 동일한 변화가 확인되고 있다.

④ ‘광개토왕릉비문’ 이외의 우리 사료에 보이는 임나의 용례는 창원 봉림사의 진경대사탑비(‘任那王族’)와 《삼국사기》 강수전(‘任那加良’)이다. 진경대사(932년)는 興武大王(김유신)을 조상으로 하는 임나왕족의 후손이었으며, 김유신은 금관국(김해) 구해왕의 증손자였으므로, 任那는 김해를 가르키지만 任那加羅는 아니다.

⑤ 강수(654년)는 任那加良 출신으로 충주사람이었다. 충주는 신라

65) 金泰植, 앞의 책, p. 326.

66) 李永植, 《加耶諸國と任那日本府》, 吉川弘文館, 1993, p. 171.

67) 李永植, 〈大加耶의 國際關係〉 《가야사의 새로운 이해》, 한국고대사연구회 주최 慶北開道 100주년 기념 가야문화 학술대회 발표요지, 1996, p. 40.

가 대가야인 우륵을 안치했던 곳이며, 우륵은 대가야의 嘉實王이 만든 가야금을 가지고 가야금 십이곡을 지었다. 668년에 문무왕은 충주 근처에서 伽倻琴을 관람하였다. 따라서 충주는 대가야인들이 멸망후에 이주했거나 신라에 의해 徙民된 곳으로 이곳 출신인 강수는 대가야의 후예임이 분명하며, 任那加良은 任那加羅이다.

⑥ 대가야의 嘉實王은 《신찬성씨록》에 任那國賀羅賀室王으로 표기되기도 하였다. 任那國賀羅는 任那加羅이다.

⑦ 백제는 554년에 加良과 함께 신라의 관산성을 공격하였는데, 김해는 이미 532년에 신라에 병합되었으며, 고령은 관산성(옥천) 공략의 요지이다. 여기의 加良은 고령의 대가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⑧ 《송서》·《남제서》의 왜국전에는 任那加羅가 임나와 가라의 2개국명으로 보이지만, 이는 왜왕의 칭호에서 숫자를 늘리기 위한 의도가 강하게 작용하였던 결과로 생각된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임나가라=고령’론의 근거는 대부분 위의 것들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이미 극복된 것들이었다. 따라서 위의 논거들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①에 대해서 : 포상팔국과 남가라와의 전쟁 때 신라는 남가라에 도움을 준다는 점과 212년에 가야국이 신라의 구원에 감사하여 인질을 보낸다는 점과 함께 이후 가야국과 신라는 군사적 충돌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400년 당시에 신라와 남가라는 적대적이었을 가능성이 적다고 하였다. 그러나 3세기 초와 400년과의 시기 차의 폭은 크다. 또한 포상팔국 전쟁을 4세기 초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7, 80년이라는 시기의 동안에는 몇 번이고 愛憎이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는 내해니사금 17년(212) 춘 삼월에 가야가 왕자를 신라에 인질로 보내는 기사⁶⁸⁾를 끝으로, 소지마립간 3년(481)⁶⁹⁾ 때

68) 《三國史記》卷2, 新羅本紀2, 奈解尼師今 17년(212)조, “春三月 加耶送王子爲質.”

69) 《三國史記》卷3, 新羅本紀3, 照知麻立干 3년(481)조, “三月 高句麗與靺鞨入北邊 取狐鳴等七城 又進軍於彌秩夫 我軍與百濟加耶援兵 分道禦之 賊敗退 追擊破之泥河西 斬首千

까지 무려 269년 동안 가야 관계기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②에 대해서 : 400년 무렵 남가라가 가야세력 중에서는 강국이었음은 인정되지만, 고구려군 步騎 5만과는 적수가 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③에 대하여 : 이는 북천동고분군 등지에서 4세기대 고구려 혹은 북방계 유물들이 출토됨으로서, 그렇게 주장하던 논자들 자신들에 의해 이미 철회된 주장이다.⁷⁰⁾ ④에 대하여 : 임나는 김해이지만 임나가라는 아니라고 하였는데 임나가라가 고령이라는 논거로는 부족하다. ⑤에 대하여 : 우륵이 대가야인의 후예라고 해서 강수가 대가야인의 후예일 것이라는 점은 가능성 정도이다. ⑥에 대하여 : 《신찬성씨록》의 임나관념은 이미 협의의 임나관념에서 변용된 시기의 임나관이다. 즉 흠명기 23년조의 임나관과 같다. 이 기사는 오히려 가실왕이 임나국 중의 하나인 가라국의 왕임을 보여주는 기사이다. ⑦에 대하여 : 554년의 가량은 확실히 고령 가라이다. 그런데 가량(=가라)은 양국이 모두 사용했다. ⑧에 대하여 : 동감한다. 그러나 이와 임나가라의 위치비정과는 상관이 없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상황증거 뿐 핵심적인 논거는 없다. 이전까지 임나가라 고령설 논거의 핵심은 사실 《일본서기》 흠명기 23년의 임나 멸망기사였다. 이가 《삼국사기》의 고령 대가야 멸망기사와 동일시기임으로 해서 임나를 고령으로 보아왔던 것이다.⁷¹⁾ 그러나 이는 이미 임나의 의미가 변용된 때의 것이다.⁷²⁾

고령설의 논거 가운데 어느 정도의 타당성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은 ⑤이다. 고령설의 핵심논거인 썸이다. 그리고 비문 상의 ‘임나가라’

餘級.”

70) 申敬澈, 〈伽耶의 武具와 馬具 - 甲冑와 鎧子를 중심으로 -〉 《國史館論叢》 7, 1989.

71) 이 설의 효시는 조선후기 실학자 韓鐵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소개와 비판은 金泰植, 〈廣開土王陵碑文의 任那加羅와 ‘安羅人戍兵’〉 《韓國古代史論叢》 6, 1994, pp. 66~67 참조.

72) 李永植도 흠명기 기사를 논거로 설정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이를 인정하는 것 같다. 그런데도 ⑥을 논거로 든 점은 이해할 수 없다.

와 가장 흡사한 형태가 강수열전의 '임나가량'이라는 점에서도 이를 집중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강수는 태종대왕(654~660년 재위) 앞에서 자신을 '본래는 임나가량 인이며 이름은 우두(臣本任那加良人 名牛頭)'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때는 이미 가야 멸망 후의 일이므로 자신의 선조 가계가 임나가라라는 의미로 보아야 된다. 그런데 열전의 첫머리에 '강수는 중원경 사랑인(中原京沙梁人也)'이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 중원경은 충주이다. 따라서 강수의 조상은 원래 임나가라인인데, 언젠가 충주에 안치(혹은 사민)되어 강수대에까지 이르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영식은 신라가 대가야인 우륵을 충주에 안치했던 점에 주목하여 충주는 대가야인들이 멸망후에 이주했거나 신라에 의해 徙民된 곳으로 보고, 이곳 출신인 강수는 대가야의 후예임이 분명하므로 임나가라는 고령지역의 가야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우륵은 대가야가 멸망하기 전 신라에 투항하여 충주에 안치되지만, 《삼국사기》 진흥왕 19년(558)조의 기사를 보면, 그 해 2월에 귀족의 자제와 6부의 부호를 국원에 사민하는 기사가 있다.⁷³⁾ 이는 국원에 사민된 사람들이 대가야계 내향자는 오히려 소수이고 수도 경주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대다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로부터 100여 년 후의 사람인 강수가 대가야계의 인물일 가능성보다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을 암시한다.

그리고 강수의 신분과 함께 여전히 굳게 지켜지고 있던 신라의 골품제를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신라의 골품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은 하대에 들어 와서이고 강수가 활약했던 시대는 신라사회를 움직이는 기본원리로서의 골품체제가 비교적 굳건히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다. 열전에 의하면 강수가 젊은 시절 비천한 여자와 야합한 것을 부모가 나무라는 것이라든지, 그의 아버지가 奈麻(17관등 중 11등급에 해

73)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4, 眞興王 19년(558)조.

당)였으며, 강수 자신 또한 沙湊(8등급)에 까지 이르는 것을 보면 구 가야계로서는 꾸준히 어느 정도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가야제국 중 신라에 복속되어 구신분에 따른 예우를 받는 경우는 남가라 밖에 확인되지 않는다.⁷⁴⁾ 특히 가라와 남가라의 멸망과정을 보면 (고령)가라계가 신라에서나마 정도의 벼슬을 할 신분을 100여 년 동안이나 유지했으리라고는 상상하기 힘들다. 또한 국원으로의 사민 시기가 가라(대가야) 멸망 이전시기임을 보면 강수의 조상이 가라(대가야)계 일 가능성은 더욱 낮다.

그리고 강수열전을 자세히 보면 강수는 그의 신체적 약점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야심가로서 출세 지향적인 인물임을 알 수 있다.⁷⁵⁾ 이를 염두에 두고 당시 신라 조정의 정치적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열왕과 문무왕대의 구 남가라계는 신라왕실과의 정치적·혈연적 결합을 바탕으로 그 정치적 입지가 최성기를 이루고 있을 때이다. 이러한 시기에 충주 사람 강수가 중앙정계에 진출하면서 왕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구 남가라계의 후손임을 알리는 것이 본인의 장래 출세에 도움되는 일이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볼 때, 강수 조상의 원래 출신지가 어디인지와는 상관없이 강수가 말한 임나가량(라)는 고령의 가라보다는 김해의 남가라로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상의 검토를 통하여 400년 고구려군이 倭兵을 뒤쫓아 이른 任那加羅는 南加羅로 논증하였다. 400년 이후 남가라는 그 이전과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구체적 양상이 어떠

74) 《三國史記》卷4, 新羅本紀4, 法興王 19년(532)조, “金官國主金仇亥 與妃及三子 長曰 奴宗 仲曰武德 季曰武力 以國幣寶物來降 王禮待之 授位上等 以本國爲食邑 子武力仕至 角干.”

75) 《三國史記》卷46, 列傳6 強首傳, “對曰 愚聞之佛世外教也 愚人間人 安用學佛爲 願學 儒者之道.” 김복순도 강수가 불교보다 유교를 택한 것을 그가 불교를 배척했다기 보다는 출세할 수 있는 것은 유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金福順, 〈大伽耶의 불교〉《加耶史研究 -대가야의 政治와 文化-》, 慶尙北道, 1995, pp. 296~297.

했는가에 대해서는 차후의 과제로 割愛한다.

2. 南加羅 지역연맹체의 범위

필자는 前稿에서 小國의 형성은 복수의 읍락이 모여서 이루어지며, 읍락은 복수의 촌락으로, 촌락은 다시 복수의 취락(小村)들이 모여서 이루어 지는 것으로 보았다.⁷⁶⁾ 그리고 小國들은 다시 지역별 통합 혹은 연맹을 맺어 이전보다는 보다 큰 정치체를 이루는데 이를 ‘地域聯盟體’로 불렀다. ‘연맹’의 정의에 대해서는 ‘동일한 군사 외교적 처지에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 결합 구조를 가지는 것’이라고 하고, ‘地域聯盟體’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복수의 小國이 결합한 형태의 연맹체’를 말한다고 하였다.⁷⁷⁾

‘地域聯盟體’란 용어는 盧重國이 백제의 국가형성과정을 설명하는 도중, 마한연맹체내에서 각 지역별로 형성된 소연맹체를 지칭하면서부터 쓰이기 시작하였는데, 그 내용은 소국과 소국이 연맹한 형태를 말하는 것이었다.⁷⁸⁾ 필자가 말하는 ‘지역연맹체’도 이와 동일한 형태를 말하지만, 씨가 말하는 마한연맹체와 같은 변한 사회 전체를 포괄하는 연맹체의 존재는 부정한다.⁷⁹⁾ 《삼국지》와 《후한서》에 보이는 ‘弁辰與辰韓雜居’란 구절로 보아 진한과 변한지역에 각각 전체를 아우르는 연맹체가 존재하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서로 섞여 살면서, 또한 생활양식이 거의 동일한 집단끼리 서로 다른 별도의 연맹체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가야 諸小國은 결코 단일동맹으로 결속한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시기에 다수의 연맹 즉 ‘소지역권’이 존재하였다고 한 견해나⁸⁰⁾ 가야의

76) 백승욱, 앞의 學位論文, pp. 32~35.

77) 백승욱, 앞의 學位論文, pp. 49~55.

78) 盧重國, 《百濟政治史研究》, 一潮閣, 1988, pp. 62~63.

79) 노중국은 加耶의 시조형제설화를 바탕으로 대가야와 금관가야가 중심이 되어 가야연맹체를 형성하였다고 하여, 사실상 가야 전체연맹체를 인정하고 있다. 위의 주와 동일.

局地的·分岐的 특성을 강조하여 ‘地域聯盟體’를 설정한 견해는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본다.⁸¹⁾ 가야 지역연맹체는 이미 《삼국지》가 표현하고 있는 大·小國 가운데 大國들의 상당수는 小國의 단계를 탈피한 지역연맹체의 형태로 존재했을 것이다. 小國 가운데 비교적 큰 나라가 중심이 되어 연맹적 결속을 한 정치체가 곧 지역연맹체인 것이다. 이러한 지역연맹체의 형성은 이미 2세기 중·후엽 무렵부터 시작되었을 것으로 보이며,⁸²⁾ 3세기 중엽의 對二郡과의 전쟁을 계기로 그 연맹체의 결속 정도는 더욱 강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⁸³⁾

삼한 시기 김해지역에 존재했던 정치세력을 狗邪國으로 봄에는 이설이 없다. 구야국은 당시 교역의 중심지로서 주변국을 주도한 國이었기 때문에 늦어도 3세기 중엽 이후에는 지역연맹체로의 성장을 보았을 것이다. ‘狗邪國’이 소국 단계의 국명이었다면 지역연맹체단계의 국명은 ‘加羅(=南加羅)’로 불리어졌을 것이다. 加羅는 韓의 또 다른 표기로 생각되며 大國의 의미로 생각된다.⁸⁴⁾

삼한 시기 부산지역에 존재했던 소국으로서는 독로국, 거칠산국 등이 문헌기록에 보이는데, 독로국과 거칠산국은 동일국에 대한 표기법의 차이일 가능성이 높다.⁸⁵⁾ 독로국의 위치 비정에 대해서는 이설이 있으나

80) 權鶴洙, 〈加耶諸國의 相關關係와 聯盟構造〉 《韓國考古學報》 31, 1994, pp. 152~158.

81) 白承忠, 앞의 학위 논문, pp. 24~30. 단 씨가 말하는 지역연맹체와 본고의 지역연맹체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씨는 김해 지역연맹체를 설명하면서 小國단계의 구야국과 소지역연맹체단계를 하나로 묶어 ‘김해 지역연맹체’ 단계로 설정하였다(위의 논문, p. 83). 그리고 3세기 후반부터 김해 지역연맹체는 분열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위의 논문, pp. 85~91). 본고는 구야국 단계의 일부 시기(소국형성시기부터 2세기 중·후엽 무렵까지)는 小國단계로 보며, 2세기 중엽 무렵부터 지역연맹체가 형성하기 시작하여, 3세기 중·후엽 무렵 지역연맹체는 한층 강화(이 시기부터 남가라 지역연맹체) 되고, 이후 5세기 전반까지 남가라 지역연맹체는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82) 《三國志》韓條, “桓靈之末 韓濊疆盛 郡縣不能制 民多流入韓國.”

83) 백승옥, 앞의學位論文, pp. 36~41.

84) 백승옥, 앞의 학위논문, p. 10.

85) 《삼국사기》 지리지 東萊郡條의 내용으로 보아 신라가 동래지역을 장악하고 居漆山郡을

부산지역에 존재했던 소국으로 비정하는 설이 대세인 것 같다.

동래 복천동고분군의 축조는 독로국인(=거칠산국인)들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복천동고분군은 목관묘의 조사와 등장기 목곽묘의 조사로 늦어도 2세기 전반대에는 고분군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이다.⁸⁶⁾ 복천동고분군 조영집단의 생활유적으로 추정되는 동래 낙민동 패총에서 발견된 옹관의 시기가 기원 후 1세기 전반으로 편년된⁸⁷⁾ 것으로 볼 때 복천동고분군의 상한은 보다 올라갈 수도 있다. 이로 보아 복천동고분군은 삼한 시기 초부터 5세기말까지 간단없이 조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해의 대성동고분군도 목관묘 단계부터 조영되기 시작하여 5세기 전반대까지 축조된다.⁸⁸⁾

여기에서 논의의 초점으로 삼으려 하는 것은 김해지역에 중심을 둔 남가라가 지역연맹체로 성장했을 때 現 부산지역과는 어떠한 정치적 관계를 가졌는가이다. 즉 지금의 낙동강 이동의 부산이 김해의 가야세력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의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한 先學의 연구성과가 있어 참고된다.⁸⁹⁾ 申敬澈은 대성동고분군과 복천동고분군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양 정치체의 관계를 정치연합으로 설명하였다. 3세기 말 이전의 양정치집단은 狗邪國과 瀆盧國이라는 독자적 정치세력으로 존재했지만, 3세기 말 북방문화와 습속을 지닌 강력한 새로운 지배집단의 출현에 따라 두 세력은 정치연합을 이루었으며, 이로 인해 南加羅(신경철의 금관가야)는 성립하였다고 하였다.⁹⁰⁾ 그리고 두 세력간의 관계는 상호 橫的인 관계가 아닌 縱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신라 북속 이전의 동래지역에는 거칠산국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三國史記》卷34, 地理1, 東萊郡條, “東萊郡 本居漆山郡 景德王改名 今因之——.”

86) 부산광역시립박물관 복천분관, 《東萊福泉洞古墳群》, 1999, p. 81.

87) 최종규, 〈瓦質土器의 編年의 位置〉《三韓考古學研究》, 서경문화사, 1995.

88) 경성대학교 박물관, 《金海大成洞古墳群》 I, 2000.

89) 申敬澈, 〈金海大成洞·東萊福泉洞古墳群 點描—金官加耶 이해의 一端〉《釜山史學》 19, 1995.

인 질서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하면서 대성동고분군 축조세력을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⁹¹⁾ 그러나 복천동고분군 축조세력이 대성동고분군 축조세력에 철저한 종속적인 위치에 놓인 것으로 보지는 않고 기존의 기득권-首長權-은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⁹²⁾ 이러한 견해는 양고분군이 발굴되기 이전 1970년대에 이미 金廷鶴에 의해 제기된 바 있었지만,⁹³⁾ 양고분군에서 출토된 유물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여 보다 구체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에 비할 바는 아니다.

이상과 같은 견해에 대해서 필자는 동감하는 바가 많다. 다만 신경철의 논지 중에서 강력한 새로운 지배집단의 정체를 285년 이후 동해안을 따라 남하한 부여족으로 보는 점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두 세력이 小國 병립의 상태에 있다가 소국연합(혹은 연맹) 상태로 되며 그 상태를 지역연맹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南)加羅 지역연맹체의 성립이다. 성립시기는 3세기 말 보다 약간 소급될 수 있다고 본다. 삼한 소국들은 3세기 중엽 무렵 對中國郡縣들과의 전쟁을 치러면서 소국들 가운데 비교적 큰 나라들을 중심으로 연합 또는 연맹의 형태를 결성하였기 때문이다.⁹⁴⁾

한편, 남가라 지역연맹체의 범위는 김해지역과 부산지역만으로 한정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김해지역을 중심으로 동북으로는 양산 남쪽의 이른바 황산진을 포함한 양산지역, 부산 복천동, 화명동, 북으로는 남지 남쪽의 낙동강 경계, 서로는 경남 창원을 그 경계로 본다. 이러한 추정은 3세기 말~4세기대 南加羅의 상징적 표식토기인 外折口緣高杯의 분포 범위⁹⁵⁾를 바탕으로, 교역망과 주변세력들과의 세력 범위를 염

90) 신경철, 위의 논문, p. 26.

91) 신경철, 위의 논문, pp. 26~29.

92) 신경철, 위의 논문, p. 29.

93) 金廷鶴, 《任那と日本》, 小學館, 1977, p. 139. 김정학은 독로국이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가지면서 금관가야의 지배를 받았던 것으로 보고 복천동, 연산동 고분군을 그러한 독로국 지배층의 것으로 파악하였다.

94) 백승옥, 앞의 학위논문, pp. 36~41.

두에 둔 범위이다(〈그림 1〉 참조). 이는 시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남가라 지역연맹체 세력 극성기(5세기 전엽 이전까지를 포함)의 최대 판도로 생각된다.

지역연맹체의 존재양상 및 상호결합의 성격 등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지만, 3세기 중엽 이전의 삼한 단계의 연맹체보다는 보다 강화된 연맹체였을 것이다. 그리고 지역연맹체 마다의 차이는 간과할 수 없지만, 남가라 지역연맹체는 무력을 배경으로 하는 지배·복속관계의 성립이 진행되어 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3세기~4세기대가 되면 철제 무기류가 대량 출토되는 점에서도 추측 가능하다.

3. 新羅로의 편입시기

고대 부산지역이 신라로 편입되는 시기에 대해 고찰해 볼 수 있는 자료로는 문헌사료와 고고학적 자료 모두 존재하지만 양쪽 모두 불완전한 면이 많다. 다음 사료는 현재의 울산으로 비정되는 우시산국과 부산으로 비정되는 거칠산국이 신라에 멸망 당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居道는 그의 族姓이 실전되어 어느 곳 사람인지 알 수 없다. 脫解尼師今 때에 벼슬하여 干이 되었다. 그때 우시산국과 거칠산국이 이웃 국경에 있어 자못 나라의 근심이 되었는데 거도가 변경의 관리가 되어 속으로 위의 두 곳을 병탄할 생각을 가졌다. 매년 한 번씩 말들을 張吐의 들에 모아놓고 병사들로 하여금 타고 달리게 하면서 즐겨 놀라고 하니 이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馬叔이라고

95) 外折口緣高杯의 분포 범위에 대해서는 申敬澈, 앞의 논문, pp. 24~26과 홍보식, 〈금관가야의 성립과 발전〉《加耶文化遺蹟調查 및 整備計劃》, 경상북도·가야대학교 부설 가야문화연구소, 1998, pp. 193~196 참조.



〈그림-1〉 外折口緣高杯 분포도⁹⁶⁾

96) 홍보식, 위의 논문, p. 197에서 전재.

일컬었다. 두 나라 사람들이 눈에 익게 보면서 신라의 보통 있는 일이라 하며 괴이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에 거도는 병마를 출동하여 불의에 쳐들어가 두 나라를 멸하였다.⁹⁷⁾

이 사료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거칠산국은 신라 탈해왕대(재위기간: 57~79)인 1세기 후반에 신라에 편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삼국지》의 기록과 고고학적인 유물상 등을 고려해 볼 때 3세기 이전에 부산지역이 신라의 영역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삼국지》에 의거하는 한 신라의 전신인 사로국은 3세기 전반까지 경주분지를 그다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4세기 이전의 기록들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것이다. 초기기록을 신빙하는 입장에 있는 대표적 논자인 이종욱은 거칠산국의 위치를 울산지역으로 보고 있는데,⁹⁸⁾ 이는 탈해왕대에 경주세력이 부산지역까지 장악했다고 보기는 무리라고 생각했던 까닭으로 보인다. 초기기록의 불합리성을 극복하고자하는 노력은 몇몇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는데, 최근 宣石悅은 신라 上古王統의 紀年을 修正論的인 방법으로 인하여 거칠산국이 신라로 복속되는 시기를 3세기 후반의 脫解王代로 보았다.⁹⁹⁾ 대개 문헌사학자들은 이 기사를 《삼국사기》의 편년 그대로 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주요 근거로하여 부산지역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신라로 편입되었다고 보는 것은 사실이다. 백승충은 부산지역의 신라 편입 시기를 4세기 중반 이후로 보고 있으며,¹⁰⁰⁾ 주보돈은 늦어도 4세기 중엽에는 부산지역이 신라의 영역으로 편입된 것으로 보았다.¹⁰¹⁾ 한편, 申敬澈은 이 기사를 5세기 중엽 금관가야(남가라)가 親

97) 《삼국사기》권 44, 열전 4, 거도전

98) 李鍾旭, 《新羅國家形成史研究》, 一潮閣, 1982, p. 21, p. 225.

99) 宣石悅, 《新羅國家成立過程研究》, 혜안, 2001, p. 131.

100) 백승충, 〈3~4세기 한반도 남부지방의 세세력 동향〉 《釜山史學》 19, 1990, p. 59.

101) 朱甫暎, 〈4~5世紀 釜山地域의 政治的 向方〉 《新羅 地方統治體制의 整備過程과 村

新羅화된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¹⁰²⁾ 북천동고분군의 문화적 양상이 5세기 중엽이 되면 신라화된다는 점에서 신라세력이 부산지역에 정착하는 시기를 5세기 중엽으로 본 舊稿¹⁰³⁾ 보다 발전시킨 논리이다.

이상과 같이 부산지역의 신라 편입 시기에 대한 여러 견해들은 문헌 기록과 고고학적 연구에 의해 제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각자 이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헌기록은 그 자체가 어느 시기의 기록인지 잘 알 수 없는 형태로 남아 있고, 고고학적 양상 또한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다. 즉 고고학적인 유물 유적의 성격이 유사하다고 해서 곧 그 지역을 정치적으로 지배했다고 보는 것도 위험한 판단이라 생각한다. 고대에 있어 국가간의 관계는 ①일시적 토벌, ②자기세력화 한 후 상호선린의 동등관계 유지, ③자기세력화 한 후 상하관계유지(자치권은 인정, 공납적 관계), ④자치권까지도 박탈하고 자국의 중앙관리파견과 동시에 행정구역상으로의 편입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유물·유적의 동질성은 ①~④의 모든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③ 또는 ④의 단계가 되어야 비로소 그 나라를 편입 또는 복속시켰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고대 국가의 지방통치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비교적 원거리에 있거나 일시적 굴복은 시켰을지라도 상대의 힘이 강세를 보일 경우 지속적으로 통제를 가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어느 일국이 다른 일국을 토벌한 기록이 있더라도 토벌한 국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해서는 곤란한 것이다. ③의 단계를 정복의 단계(피정복국가로 보아서는 복속의 단계)로, ④의 단계를 멸망의 단계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지역의 신라로의 편입은 ④의 단계 이전에는 오랫동안

落》, 신서원, 1998, p. 487.

102) 申敬澈, 앞의 논문, p. 46의 주51).

103) 申敬澈, <三國時代의 釜山> 《부산의 역사와 자연》, 부산라이프신문사, 1992, pp. 165~168.

안 ③의 단계로 유지했을 것이다. ③단계의 시작은 신라양식 高杯가 나오기 시작하는 복천동 21·22호분 축조단계(5세기 초)로 보며,¹⁰⁴⁾ ④단계의 시작은 그보다 이후일 것으로 생각한다.

IV. 맺음말

• 지역사연구의 지향점과 관련하여

가야사 혹은 그 문화가 앞으로의 부산 건설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가야사의 전개과정과 그 정체성이 충분히 밝혀져야만 가능하다. 그런데 가야사는 그 체계적 정리가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다. 즉 가야에 대한 개념, 존재시기, 영역, 종족, 국가발전단계, 가야 각국간의 관계 등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조차 미해결된 상태인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가야사 연구에 대한 邁進은 더욱 요구된다.

그와 더불어 생각해야할 점 몇가지는 첫째, 부산에서의 가야사·가야문화가 차지하는 위치이다. 이는 곧 부산문화의 특질 중의 하나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될 것이다.

둘째는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부산문화의 지향점이다.

셋째는 부산의 이미지 구축을 위한 방안 모색이다. 가야사의 연구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지 않고 행해질 경우, 그것은 미래를 위한 살아 숨쉬는 역사가 아니라, 편협한 好古主義의 애용물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104) 釜山大學校博物館, 《東萊福泉洞古墳群II》, 1990.